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신년특집

“신세대 정서 맞는 눈높이 포교”

청소년 포교는 미래 불교를 이끌어 갈 동남을 길러내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지는 96년을 맞아 미래를 일컫는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연중 캠페인으로 벌이며, 이를 주제로 신년 특별좌담을 마련했다. 이 좌담회는 청소년 포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부사 교사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포교 행정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청소년 포교 현실을 진단하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때마침 조계종이 96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지정해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청소년 포교는 청소년들의 감각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활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사회=오늘 좌담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과 청소년포교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영자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중심으로 주도해왔을 정도로 공적기능을 지녔는데, 계속 무관심하면 결국 군소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했다니 늦은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영자=국민학생 불자수도 개신교의 1/3 수준에 머물러 군요. '엄마는 절에 가도 나는 교회가'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왜 가니 물어 보면 '벼를 짓 주고 노래하고 재미있어'라는 대답이예요. 더욱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위기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청소년 포교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이런 현상까지 이르렀는지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서 불교의



좌담회 참석자들은 청소년불자 감소추세에 우려를 표하고 청소년들의 감각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실천을 과제로 제시했다.

으로 정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문명·문화적 갈등을 초래했고 불교의 위기와 나아가 민족의식의 붕괴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독교교인이 늘어나도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김정호=현대사회구조가 변화했음에도 유독 불교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적 포교방법을 벗어

문제청소년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의 구제가 더 시급합니다. 광범한 청소년들이 정말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친구와 경쟁해야 진화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비정상인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입장에서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놓고 그들이 올바르게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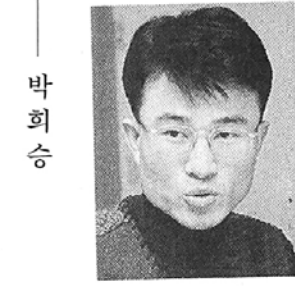
합니다. 교회는 새로 온 사람이 질질 정 도로 하는데, 절에서는 안대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왔다갔다 그냥 가버립니다. 사회=불교계는 YMCA같은 회관도 없이 우선 주춧돌 놓아야 시작하고 있는데 타종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종교로서 삼을 만한 것은 없을까요.

김정호=약물남용예방 캠페인, 방학을 이용한 각종 캠프, 교회에서의 문화화교

제도권의 교육이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리학에서 청소년 시기를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의 시기라고 부를 만큼 청소년시기는 자기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그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자기를 버리게 깨닫는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는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중=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각 학교마다 선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학교폭력문제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종교인구가 늘어나는데 반비례해 청소년범위가 늘어난다는 반증입니다. 사찰이 청소년들의 수행, 교화 나아가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역할까지 하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불교청소년들은 '불사를 잘한다' '환경운동을 열심히 한다' '불교청소년은 효자'



박희승

어른들부터 반성...가치관 재정립 통일한국 새 인간상 제시 불교뚝

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자=국민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크게 심각하지는 못하지만, 무스 빠르고 화장실서 옷갈아 입고, 그런 아이들 중학교 가서 정학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국민학교 때부터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급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찰 무료입장, 숙식제공 그리고 사찰순례 문화기행 등 종단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불자연예인 문인 법승스님 등 유명인사를 모시고 하는 순회강연도 좋고요.

박희승=청소년들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을 논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폭력성, 남을 무시하는 행위는 없었나 불교인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운동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회=더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만 마치고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을 통해 불교는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정성운 기자

부모의 신행 자녀감성에 큰 영향 청소년캠프등 운영확대 인성개발

올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서 왜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며 얘기를 시작하죠.

박희승=그동안 한국불교는 내분에 힘써 청소년포교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커녕 제물 추스리기에도 힘겨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조계종은 포교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포교활성화를 위한 전향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 내부의 미래를 준비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이룰 새인간상 정립이 불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첫번째 올해를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한 것입니다.

사회=불교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계의 반성이 불교청소년의 해를 설정했다는 말씀인데요. 청소년불자의 현황은 어떤지요.

김형중=청소년 불교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6학년도 고교원시철에 나타난 종교분포를 조사해 봤는데, 불교는 10.3%, 개신교 40.6%, 천주교는 19.2%입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합하면 기독교인구가 60%를 차지합니다.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중=요즘의 청소년들은 서구적이고 물질적 쾌락적 유흥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적이고 전통적이지요. 그렇다고 요즘의 세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대를 이끌고 선도해야 할 문화를 불교가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들

이 무엇을 선호하느냐 조사해 봤는데요. 남학생은 스포츠를, 여학생은 예술활동을 좋아하더군요.

박희승=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서양화되어 있다보니 우리 고유의 것을 얘기하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묘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인은 자부적인 근대화에 실패한 근대사에 있다고 봅니다. 사상적으로 불교에 심취했던 개화당운동은 주목 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과 미국 즉, 제국주의에 의해 자부적인 근대화에 실패했습니다. 이에따라 불교가 사상적 패러다임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내분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세일즈맨이 상품팔듯 해서도 안되겠죠. 또 자세에 있어서도 불교가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해야 실추된 불교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형중=소외계층에 관심 갖는 것이 종교의 중요기능이었는데 저도 동참합니다. 소외계층과 청소년층은 비생산층이므로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는 반성도 뒤따라야 합니다.

박희승=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김형중

탈선청소년 교화기능 강화해야 불교 문화공간 다양화 급선무

김정호=박선생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중에 중요 이슈가 불교가 사회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아닌가요. 이를 종교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박희승=불교포교방략의 접근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정신운동입니다만, 사회는 불교인도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상의상 관하는 연관된 관계이므로 불교와 정치 경제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



김정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기구 필요 제도권교육 허점 보완책 세워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하겠죠. 김정호=박선생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중에 중요 이슈가 불교가 사회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아닌가요. 이를 종교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박희승=불교포교방략의 접근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정신운동입니다만, 사회는 불교인도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상의상 관하는 연관된 관계이므로 불교와 정치 경제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종교의 경험을 배우고 종교이기주의와 상업성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김정호=며칠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2개월간 학교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7천9백70명이 적발되고 이중 9천88명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비단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분도흡입 등의 청소년탈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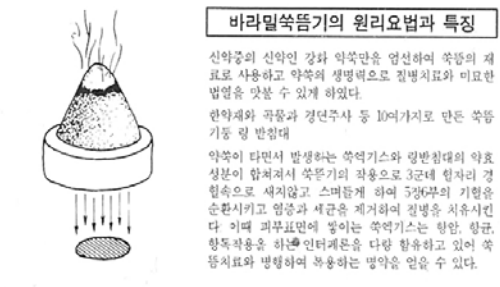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열중,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유흥맥을 책임지는 경락중 배음,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응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과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임중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간헐,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췌장, 위암, 대장암,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지방, 기미, 주근개,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은 멎친던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 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흥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습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0분씩 할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원이 되는 배음, 단전, 중완 3곳에 할라를 하면 위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통타자극없이 혼자서 안전하게 효과있게 작용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박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약효를 생리적으로 질병치료와 미묘한 방법론을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완약제와 작용과 정전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통 및 받침대

약물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뜸기통과 일반쑥뜸의 약효 차이가 밝혀져 쑥뜸기의 사용으로 30분 할라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여 5장6부와 기혈을 순환시키고 임중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생기는 쑥뜸기는 환원, 항균, 항독작용을 하므로 인체온도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병약을 얻을 수 있다.

쑥뜸기 내용

- 1) 바라밀 쑥뜸을 뜬 수 있는 15가지 도구(바라밀쑥뜸기통, 약 2개, 받침대)
- 2) 쑥뜸도구인체 받침대
- 3) 쑥뜸기 한 세트로 전기작업이 사용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 부산 불교포교원연구회 회장
 - 10여년간 불교건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 암 등의 난치병을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순회강연도 캐드림에 신도들에게 스님에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신 분에게서 원자 스님을 찾아보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 (보급비 무료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타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되어있는 신타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받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앉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여 시도된 신타다라니의 사용이 소문만 믿고 여러 불사외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머잡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책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라밀 쑥뜸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타다라니 1폭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 864-3740
- 서울: 경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농원빌딩 3층)
 - 전화: (0335) 34-9490, 39-1906
 - / 아간: (0342) 706-3060